

## 『논리-철학 논고』의 그림 이론에 관하여

박 정 일

**【국문요약】** 『논리-철학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른바 그림 이론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그림 이론의 요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는가? 나는 이 글에서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은 상이하다는 것,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 그림 이론은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에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그림 이론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문제는 의미 이론의 문제와 진리 개념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부정의 수수께끼”라고 부른 것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논리-철학 논고』의 그림 이론이 비유에 불과하고 내용이 없다는 해석이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그림 이론, 그림의 대상, 그림의 뜻, 모사 관계, 투영 관계, 부정의 수수께끼

## 1. 들어가는 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에서 이른바 그림 이론은,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비트겐슈타인 연구가들에 의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고』의 그림 이론에 대한 논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 쟁점들에서 상충하는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논고』의 그림 이론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쟁점들은 무엇인가? 나는 『논고』를 중심으로 이 물음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논고』에서 ‘그림’ 개념은 2.1번 대와 2.2번 대에서 서술되고, 그 개념은 3번과 4번 대에서 ‘사고’와 ‘명제’와 더불어 다시 논의된다.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5)이고,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4.22)이다. 그런데 『논고』의 근본 사상에 따르면, 논리적 상항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4.0312).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림’은 **요소 명제**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논리상항을 지니고 있는 **복합 명제**에도 적용되는가? 코피(I. Copi), 블랙(M. Black), 박병철(2014) 등은 전자를 주장한다. 반면에 힌티카(J. Hintikka), 매리언(M. Marion), 이영철(2016) 등은 후자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가? 더 나아가 왜 동어반복과 모순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아닌가?

둘째, 『논고』에서 ‘그림’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비유이다. 그러나 ‘그림’은 단순히 비유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하여 그림 이론은 어떤 실질적 내용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림 이론 또는 그림 비유는 어떤 중대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인가? 다이아몬드(C. Diamond)와 강진호(2009)는 전자를 주

장한다. 반면에 글록(Glock)과 해커(P. M. S. Hacker)는 후자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가?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첫째, 『논고』에서 어떤 하나의 사실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하나의 사실이 그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사 관계(2.1513)뿐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더 있는가? 둘째, 그림의 대상(2.173)과 그림의 뜻(2.221)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특히 거짓 명제의 경우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은 각각 무엇인가? 셋째, 모사 관계(2.1513)와 투영 관계(3.12)는 동일한가 아니면 상이한가? 그것들은 각각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가?

나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논고』의 이른바 그림 이론에서 ‘그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 가  $S$ 의 그림일 때  $p$ 와  $S$ 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2절). 더 나아가 우리는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사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 간의 관계이며, 투영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뜻 간의 관계이다(3절). 이제 투영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나는 그 명제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라는 언급(4.021)에 주목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왜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도 그림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명제가 현실과 공유하는 명제의 논리적 형식과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에 따른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합 명제는 세계와의 “묘사 관계”에 의해서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절). 또한 우리는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림 이론을 통

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철학적 문제로서 의미 이론의 문제, 진리 개념의 문제, 그리고 부정의 수수께끼를 지적할 수 있다(5절). 비트겐슈타인은 통상적인 뜻에서의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림 이론에서의 ‘그림’은 『논고』 고유의 개념으로서 논리적 그림이다. 물론 그것은 비유이기도 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청년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결정적인 착상이었다(6절).

## 2.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

『논고』의 그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 그림 이론에 대한 해명은 피상적이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먼저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은 그것의 대상(Objekt, object, subject)<sup>1)</sup>을 밖으로부터 묘사하며(그것의 관점이 그것의 묘사 형식이다), 그 때문에 그림은 그 대상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한다.(2.173)

그림은 그것이 묘사하는 바를, 그것의 참 또는 거짓과는 상관 없이, 묘사 형식을 통해 묘사한다.(2.22)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 그림의 뜻이다.(2.221)<sup>2)</sup>

1) 그림의 대상(Objekt)과 세계의 실체로서의 대상(Gegenstand)은 상이하다. 혹자는 Ogden이 2.173의 “Objekt”를 “object”로 번역하였고, 이 번역을 꼼꼼히 검토한 비트겐슈타인이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그림의 “대상”이 사태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태를 이루는 대상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명명의 대상일 뿐이다(참고: 3.144, 3.22, 3.221).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대상”과 실체로서의 “대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Pears와 McGuinness는 2.173의 “Objekt”를 “subject”로 번역하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논고』의 번역으로 대부분 비트겐슈타인(2006a), 이영철 옮김을 따르고 있다.

이제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지금 책상 위에 시계가 있다. 이를 보면서 갑은 도화지에 책상 위에 시계가 있는 그림을 그렸고, 을은 책상 위에 나침반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에서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은 각각 무엇인가?

책상 위에 시계가 있다는 **사실**이 갑과 을의 그림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우리는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다.”(2.1)). 즉 갑과 을은 모두 책상 위에 시계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단, 갑은 올바르게 그렸고, 을은 그르게 그렸다. 한편 갑과 을의 그림의 뜻은 상이하다. 갑의 그림의 뜻은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 즉 책상 위에 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을의 그림의 뜻은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 즉 책상 위에 나침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의 대상은 그림에 의해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되는 것(2.173)이며, 그림의 뜻은 그림이 그 그림의 대상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했을 때 묘사하는 것(2.221)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논고』에서는 “사실들의 그림들”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현실의 그림”(4.01, 4.021, 4.06), “세계의 그림”(2.0212), “상황의 (논리적) 그림”(4.03, 4.032), “사태의 기술”(4.023)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제 “상황의 그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을은 책상 위에 나침반이 있다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그린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곧 그림의 대상이고 동시에 그림의 뜻인 것 아닌가?

그러나 거짓이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논고』에서는 결코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고』에서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1)이고, 사실들의 총체(1.1)이다. 거짓인 상황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우리

는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다.”(2.1)). 따라서 책상 위에 나침판이 있다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을의 그림의 대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거짓이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그림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고』의 존재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이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세계에 속하는 그림의 대상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 즉 그림의 뜻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p가 S의 그림이라고 하자. 『논고』에서는 이를 p는 S를 묘사한다(abbilden), 묘사한다(darstellen), 표상한다(vorstellen), 기술한다(beschreiben)로 표현하고 있다. 『논고』에서 p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림(2.17), 논리적 그림(2.19), 사고(3), 요소 명제, 명제(4.01)이다. 다음으로 S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사실(2.1, 3), 사태(4.023), 상황(2.11, 2.203), 현실(4.01), 세계(2.19)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S가 항상 그림 p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S는 그림 p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림 p의 뜻일 수도 있다. S가 그림 p의 대상이라면, 『논고』에 따르면, 그림 p는 그림의 대상 S를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묘사)한다. 반면에 S가 그림 p의 뜻이라면, S는 그림 p가 그 그림의 대상(존립하는 사태, 사실,

---

3)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Mácha(2015)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면에, 요소 명제들은 가능한 사태들을 묘사하고 복합 명제들은 가능한 사실들을 묘사한다. 최상위 등급의 가벼운(slight) 용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언어는 모든 가능한 사태들의 총체를 묘사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존재하는 사태들의 총체’로 정의한다. ‘존재하는(existing)’은 여기에서 ‘실제의(actual)’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언어가 생각된 세계[gedachte Welt]를 묘사한다고 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실제로 참이 아닌 명제들,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Mácha(2015), p. 69) 그러나 현실 세계(2.022)는 그림의 대상이고, 현실 세계와 “상이하게 생각된 세계”(2.022)는 그림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내적인 묘사 관계는 언어와 세계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며(4.014), 언어와 생각된 세계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현실)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묘사)했을 때 그 묘사하는 것이다.

p가 참인 요소 명제인 경우, 그리고 그림 p의 대상이 p와 일치하는 사태인 경우, 그림 p의 대상과 그림 p의 뜻은 동일하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p가 참인 복합 명제의 경우, 그림 p의 대상과 그림 p의 뜻은 동일하지 않지만 일치한다. p가 거짓인 요소 명제, 또는 복합 명제인 경우, 그림 p의 대상과 그림 p의 뜻은 동일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으며, 그림 p의 뜻은 그림 p의 대상을 그르게 묘사할 때 그 묘사하는 것으로서, p라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논고』에서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의 구분은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도달한 것이다. 그는 『논고』 이전에 「논리에 관한 단상들」(“Notes On Logic, September 191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명제는 본질적으로 참-거짓이다. 따라서 한 명제는 (그것이 참인 경우와 그것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하는)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명제의 뜻(Sinn)이라고 부른다. 명제의 **지시체(의미, Bedeutung)**는 그 명제에 실제로 대응하는 사실이다. 나의 이론의 주요한 특징은 이렇하다: p는 아니다-p(not-p)와 동일한 지시체(의미, Bedeutung)를 지닌다.<sup>4)</sup>

이 당시에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영향 하에서 프레게의 용어 “뜻”과 “지시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명제의 뜻과 명제의 지시체를 구분하고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한 명제의 뜻은 그 명제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대응하는 두 개의 극이고, 한 명제의 지시체는 그 명

---

<sup>4)</sup> Wittgenstein (1961), p. 94.

제에 실제로 대응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이제 『논고』에서는 그림 이론과 더불어 그림의 뜻과 그림의 대상으로 수정된다. 명제는 그림이고 명제가 묘사하는 대상은 그림의 대상, 즉 사실들이다. 또한 명제의 뜻은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2.221)이고, 명제가 사정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4.022)이다.<sup>5)</sup>

더 나아가 『논고』에 따르면, “명제는 사실들과 독립적인 뜻을 가진다.”(4.061) 다시 말해 그림(명제)의 뜻은 그림의 대상(사실)과 독립적이다. 을의 그림의 뜻은 책상 위에 시계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을의 그림에서(“명제 속에서”) 그림의 뜻은(즉 그 그림이 묘사하는 “상황은”)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4.031)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은 시험적으로 조립되는가?

### 3. 묘사 관계와 투영 관계

앞에서 우리는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의 대상은 그림이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하는 것이고, 그림의 뜻은 그림이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할 때 그 묘사하는 것이다. 참인 명제의 경우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은 동일하거나 일치한다. 반면에 거짓인 명제의 경우 그림의 대상과

5) 강진호(2009)는 “요소문장 각각이 갖고 있는 특정한 참-거짓 가능성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요소문장의 뜻(sense)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강진호(2009), p. 10)이고 “문장의 뜻(=특정 참-거짓 가능성)”(강진호(2014), p. 13)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논고』에서 완전히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Pitcher(1964) 또한 그러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의 뜻”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첫 번째 의미의 사용에 따르면, “p”와 “~p”는 명제의 뜻이 동일하다(Pitcher (1964), pp. 54-56). 그러나 이는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의 구분을 간과해서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다.



그림의 뜻은 동일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을 그림이 되게끔 하는 것, 즉 사실로서의 그림(2.141)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림이 어떻게 뜻을 지니느냐 하는 것, 특히 거짓 요소 명제의 경우 어떻게 뜻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악 방식에 따르면, 그림에는 그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모사 관계도 또한 속한다.(2.1513)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실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2.1514)

이 짝짓기들은 말하자면 그림 요소들의 축수들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은 현실과 접촉한다.(2.1515)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명제 기호(음성 기호 또는 문자 기호 등)를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한다.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3.11)

우리가 사고를 표현하는 데 쓰는 기호를 나는 명제 기호라고 부른다. 그리고 명제란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명제 기호이다.(3.12)

먼저 나는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가 무엇인지를 예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반점을 보자.

•

이 반점을 a라고 부르자. a는 검다. 이제 철수가 이 반점을 보면서 “a는 검다”(“Ba”)라고 말하고, 영희가 “a는 붉다”(“Ra”)라고 말한다

고 하자. “Ba”에서 모사 관계는 “a”와 위의 반점(a), 그리고 “B\_”와 (a의) 검음 간의 짝짓기에서 성립한다.<sup>6)</sup> 이는 “Ba”에서의 투영 관계와 유사하다. 우리는 “Ba”라는 “명제의 뜻을 생각”하면서 “a”에 a, 그리고 “B\_”에 (a의) 검음을 투영시킨다. 한편 “Ra”에서 모사 관계는 “a”와 a, 그리고 “R\_”과 (a의) 검음 간의 짝짓기에서 성립한다. 이는 “Ra”에서의 투영 관계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Ra”라는 “명제의 뜻을 생각”하면서 “a”에 a, 그리고 “R\_”에 [(a의) 검음이 아니라] (세계에 속하는 어떤 것의) 붉음을 투영시킨다.

이제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하기로 하자. 『논고』에 따르면, 모사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 간의 관계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의 요소들과 **그림의 대상(Objekt)**의 실물들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Ba”와 “Ra”라는 그림에서 각각의 요소들(즉 “a”, “B\_”, “R\_”)은 a가 검다는 사실, 즉 그림의 대상의 실물들(a와 (a의) 검음)과 짝짓기 된다.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실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2.1514) 반면에 투영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뜻 간의 관계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의 요소들이나 구성 요소들과 **그림의 뜻**을 이루는 의미들 간의 관계이다. 우리는 “Ba”와 “Ra”라는 명제 기호를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한다.”(3.11) 이때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3.1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a”와 “Ra”의 명제의 뜻을 생각하면서 “a”에는 a를 투영시키고, “B\_”에는 (a의) 검음을, “R\_”에는 (어떤 것의) 붉음을 투영시킨다. 그리하여 “명제는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명제 기호이다.”(3.12) 이제 이를 더 상세하게 고찰하기

6)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에게는 “Ba”에서 기호화하거나 지칭하는 것은 단독으로 분리된 “B”와 “a”가 아니라, 오히려 “B”가 이름 “a” 왼쪽에 있다는 것과 “a”가 기호 “B”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박정일 (2015), p. 24, 각주 29.

로 하자.

어떤 한 그림을 그림의 대상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모사 관계이며(2.1513),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그림의 대상에 속하는) 실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2.1514). 이러한 의미에서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에 대응한다.”(2.13) 모사 관계에서 “대응”과 “짝짓기”는 항상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과의 관계로 결정된다. 가령 “Ba”와 “Ra”의 모사 관계에서 “B\_”와 “R\_”에는 둘 다 각각 (a의) 검음이 짝짓기 된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Ba”에서 “B\_”가 (a의) 검음에 대응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떻게 “Ra”에서 “R\_”이 (a의) 검음에 대응될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Ba”뿐만 아니라) “Ra”는 a가 검다는 사실(또는 존립하는 사태)과 모사 형식 또는 현실의 형식, 다시 말해 논리적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실물들이 서로 그렇게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표상한다.

그림 요소들의 이러한 연관은 그림의 구조라고 불리며, 그 구조의 가능성은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불린다.(2.15)

모사 형식은 사물들이 그림의 요소들처럼 서로 관계 맺고 있을 가능성이이다.(2.151)

모든 그림이, 그 형식이 어떠하건, 아무튼 현실을—올바르게 또는 그르게—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 형식, 즉 현실의 형식이다.(2.18)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에 대응”(2.13)하고, “그림은 그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데 있다.”(2.14) 이때 그림의 요소들의 이러한 연관이 “그림의 구조”이고, 그 구조

의 가능성이 모사 형식이며, 바로 이것이 그림과 현실이 공유하는 “논리적 형식”, 즉 “현실의 형식”이다. 이러한 논리적 형식은 한 명제의 상항들을 모두 변항으로 바꿀 때 주어진다(3.315). 그렇기 때문에 “Ba”와 “Ra”의 논리적 형식은 “Xx”이다. 반면에 “책상 위에 시계가 있다”와 같은 명제는 a가 겹드는 사실과 짝짓기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논리적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모사 관계는 그림이 그림의 대상(현실)과 공유하는 모사 형식, 현실의 형식. 논리적 형식이 동일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그림과 그림의 대상 간의 관계이다. 반면에 투영 관계는 그림과 그림의 뜻 간의 관계이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명제 기호(음성 기호 또는 문자 기호 등)를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한다.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3.11). 우리는 “Ra”라는 명제 기호를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하며, 이때 그 투영 방법은 “Ra”라는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에는 a를, 그리고 “R\_”에는 ((위의 반점의) 검은이 아니라) (세계에 속하는 어떤 것의) 붉음을 투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란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명제기호”(3.12)이다.7)

그림 “Ba”와 그림 “Ra”의 그림의 대상은 a가 겹드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의 그림의 대상은 동일하다. 반면에 그것들의 그림의 뜻은 상이하다. 그림 “Ba”의 뜻은 a가 겹드는 사실이지만, 그림 “Ra”의 뜻은 a가 붉다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한 가능한 상황은 세계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Ra”의 뜻을 생각함으로써 투영하는 것이다. 그러한 투영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은 명제 속에서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7) McGinn(2009), p. 91은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리핀은 그림과 명제 기호는 일반성의 차원에서 다르며, 전자는 유이고 후자는 종이라고 주장한다(Griffin (1964), pp. 87). 그러나 이는 전혀 옳지 않다.

명제 속에서 상황은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이 명제는 이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신, 우리들은 곧바로 “이 명제는 이리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4.031)

Ra라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투영 관계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조립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Ra”라는 그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 그림의 뜻이다. “Ra”는 그 그림의 대상, 즉 a가 겹다는 사실을 그르게 묘사(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묘사하는 것, 즉 Ra라는 가능한 상황은 “Ra”라는 그림의 뜻이다. “Ba”가 **그림의 대상을** 올바르게 묘사하고 있고 “Ra”가 그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Ba”나 “Ra”가 **그림의 뜻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묘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그림의 뜻은 그림이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림의 대상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할 때 그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논고』의 다음 언급을 이해할 수 있다.

명제에는 투영에 속하는 모든 것이 속한다 ; 그러나 투영된 것은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영된 것의 가능성은 속하지만, 이 투영된 것 자체는 속하지 않는다.

명제 속에는 그러므로 명제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명제의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제의 내용”은 뜻이 있는 명제의 내용을 말한다.)

명제 속에는 그 뜻의 형식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뜻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3)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에는 “투영된 것의 가능성은 속하지만, 이 투영된 것 자체는 속하지 않는다.”(3.13b) 이제 이 언급과 “그림

은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포함한다.”(2.203)를 비교하면, 여기에서 “투영된 것”(3.13b)이 그림이 “묘사하는 상황”(2.203)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이 “묘사하는 상황”은 그 그림의 뜻이며, 세계에 속하는 사실일 수도 있고, 존립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 참인 명제의 경우 그 명제가 묘사하는 사실이 그 명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명제에는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명제와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은 그 그림의 대상과 묘사 형식이 동일하므로, 명제 속에는 그 뜻의 형식, 즉 묘사 형식이나 묘사 형식<sup>8)</sup>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뜻의 내용, 즉 그 상황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9)</sup>

더 나아가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그림 비유 또는 그림 이론을 통하여 진리 개념의 문제를 해결한다. 명제는 뜻을 지닌다. 그 뜻이 현실과 일치하면 그 명제는 참이고, 현실과 불일치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다(“그림의 참 또는 거짓은 그림의 뜻과 현실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있다”(2.222). 그리고 “그림이 참인지 거짓인지 인식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비교해야 한다.”(2.223) 그러나 왜 그러한 현실과의 비교는 가능한가? 왜냐하면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은 묘사 형식(현실의 형식, 논리적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요소들과 그림의 대상의 실물들 간의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이 짝짓기들은 말하자면 그림 요소들의 축수들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은 현실과 접촉한다.”(2.1515) 그러한 짝짓기를 통해서 비교가 이루어지고 그림의 참

8) 이 “묘사 형식”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논리적 구분론적 사용에 따른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다.

9) 결론적으로 한 명제는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즉,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상황 자체는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차가 나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다”와 “포함하고 있다”는 상이하다.

과 거짓은 결정된다.

#### 4. 그림과 복합 명제

앞에서 우리는 참인 요소 명제와 거짓인 요소 명제가 왜 『논고』에서 그림인지를 살펴보았다. 가령 “Ba”와 “Ra”는 (이것들이 요소 명제라고 가정할 때) a가 겹치는 사실, 즉 그림의 대상과 모사 관계에 있고, 또 그 사실과 그 명제들은 모사 형식(현실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다. 그렇다면 “a는 겹치지 않다”(“ $\sim$ Ba”), “a는 붉지 않다”(“ $\sim$ Ra”), “a는 겹거나 붉지 않다”(“Ba  $\vee$   $\sim$ Ra”)와 같은 복합 명제는 그림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코피(I. Copi), 블랙(M. Black), 박병철(2014)은 『논고』에서 그림 이론은 요소 명제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힌티카(J. Hintikka), 매리언(M. Marion), 이영철(2016)은 그림 이론은 복합 명제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요소 명제만 그림이라는 코피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논고』의 근본 사상이다.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4.0312) 이에 따르면, 복합 명제를 이루는 “ $\sim$ ”과 “ $\vee$ ”와 같은 논리 상황들은 세계에 속하는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요소 명제에는 그러한 논리 상황이 없고, 이름들은 세계에 속하는 대상들과 짝짓기 되므로 모사 관계가 성립하고 그리하여 요소 명제는 그림이다. 반면에, 코피에 따르면, “비-요소 명제들은 대상들을 대표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그림의 모든 요소들은 대상들을 대표해야만 하므로, 비-요소 명제들은 그림일 수 없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들에 대해서만 그의 의미 그림 이론을 의도했다.”<sup>10)</sup>

<sup>10)</sup> Copi (1966), p. 171. 블랙은 그림 이론은 일차적으로 요소 명제들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그림 이론은 진리 함수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이 옳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증거들이 있다. 『논고』에서 그림 이론은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다.”(2.1) 여기에서 “사실들”은 복합 명제에 해당되는 것이다.<sup>11)</sup>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 『논고』에서는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인 복합 명제도 뜻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언급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명제 “p”와 명제 “~p”는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한다.”(4.0621) “p의 진리 함수의 뜻은 p의 뜻의 함수이다.”(5.2341) 다시 말해 요소 명제가 뜻을 지니는 것과 같이 복합 명제도 뜻을 지닌다면, 요소 명제와 마찬가지로 복합 명제도 그림으로 간주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일기 1914-1916』의 다음 기록은 이러한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요소 명제 형식은 모사해야만 한다. 모든 모사는 그것을 통해 일어난다.”<sup>12)</sup> 그렇다면 『논고』에서 복합 명제는 어떻게 그림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영철(2016)은 힌티카(Hintikka(1986)의 생각

---

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논의가 제공하려고 시도할 논리적 기호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Black (1964), p. 220) 이러한 블랙의 주장과 박병철(2014)의 주장은 유사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엄밀하게 말해 그림이론에서 그림적 성격이 적용되는 언어의 레벨은 요소명제와 원자사실 사이의 관계인 것이다.”(박병철 (2014), p. 106) 또한 그는 “요소명제에 적용되는 그림적 성격을 요소명제 이외의 모든 명제로 확장할 수 있는 장치”(박병철 (2014), p. 116)를 거론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해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블랙(Black(1964))과 박병철(2014)은 명시적으로는 코피(Copi (1966))의 주장을 따르는 있다고 생각한다.

11) “사실과 사태 간의 차이란 무엇인가?”라는 러셀의 질문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사태는 한 요소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소 명제들의 논리적 곱에, 그 논리적 곱이 참일 때, 대응하는 것입니다.”(Wittgenstein (1961), p. 129)라고 대답한다.

12) Wittgenstein (1961), p. 22.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우선, 세퍼가 증명한 바이지만, 모든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들에 대한 연속적 부정의 연언이다(5.5). 그런데 부정은 부정된 명제의 그림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명제의 부정은 부정된 명제와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4.0621)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명하게도, 연언은 연언된 명제 각각의 그림 성격을 합친다. 따라서 모든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그림 성격을 보존한다.<sup>13)</sup>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대단히 불충분한 해명이다. 연언은 연언된 명제 각각의 그림 성격을 합치고, 부정은 부정된 명제의 그림을 거꾸로 바꾸기(5.2341) 때문에 요소 명제의 그림 성격이 복합 명제에서도 보존된다는 설명은 기껏해야 요소 명제들이 뜻을 지니는 것과 같이 복합 명제들도 뜻을 지닌다는 것을 보이는 것—사실상 이것조차 성공적인지도 의문이지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논고』에 입각해서 “그림 성격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요소 명제는 현실과 모사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림이다. 이러한 요소 명제의 그림 성격은 어떻게 복합 명제에서도 보존되는가? 복합 명제는 현실과 모사 형식을 공유하는가? 힌티카의 논의에는 바로 이 점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힌티카는 위의 논의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논고』에서, 만일 p가 ‘그림’이라면 ~p는 ‘그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일한 그림**이고, 하지만 거꾸로 바뀐(reversed) 그것의 ‘뜻’(그것의 ‘논리적 극성(logical

<sup>13)</sup> 이영철 (2016), p. 144.

polarity)’을 지니는 그림이다.<sup>14)</sup>

나는 이러한 힌티카의 언급은 지독한 혼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실 p에 대해서 명제 “p”와 명제 “~p”가 말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명제 “p”와 명제 “~p”의 그림의 대상은 같다. 즉 그것은 p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림의 대상이 동일하면 동일한 그림이 되는가? 명백하게도 명제 “p”와 명제 “~p”는 뜻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그림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Ba”, “~Ra”, “Ba ∨ ~Ra” 등은 그림일 수 있는가? 먼저 이것들은 그림을 그림으로 만드는 모사 관계를 저 그림의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 있다. 단, 이 모사 관계에서는 “~”와 “∨”와 같은 논리 상황은 대표하지를 않으므로, 이 명제들과 그림의 대상(현실)이 공유하는 모사 형식은 모두  $X_x$ 이다. 만일 이 명제들이 그림의 대상과 모사 형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하여 그림의 대상과 모사 관계에 놓인다면 이 명제들은 그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Ba”가 그림이라면 “# Ba”도 (여기에서 “#”는 반올림표이다) 그림 아닌가? 왜냐하면 “# Ba”의 모사 형식도  $X_x$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는, 우리가 **형용사**로서의 “동일하다”라는 낱말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동일성 기호로서 등장한

<sup>14)</sup> Hintikka, M. B. & Hintikka, J. (1986), p. 108. Hintikka, J. (1994), p. 242. Marion (2009)은 이러한 Hintikka (1994)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 Marion (2009), p. 29, p. 117.

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징하며—그 지칭 관계가 다르며—따라서 그 두 경우에 그 상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두 상징은 단지 그 기호만을 우연히 서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5.4733)

형용사로서의 “동일하다”라는 낱말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가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리 상황으로서의 “#”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Ba”는 무의미하며 그리하여 그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Ba”에서 “~”에 무엇을,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우리는 “Ba”의 뜻을 거꾸로 바꾸는 기능을 “~”에 부여했다(“부정은 명제의 뜻을 거꾸로 바꾼다.”(5.2341)) 바로 그러한 기능이 “부정의 의미”(5.451)이다. 이제 투영 관계와 투영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명제 기호(음성 기호 또는 문자 기호 등)를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한다.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3.11) 또한 “~Ba”라는 명제의 뜻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a”에는 a가 투영되고 “B\_”에는 (a의) 점음이 투영되며, “~”에는 “Ba”의 뜻을 거꾸로 바꾸는 기능이 부여된다.<sup>15)</sup>

그런데 “~”에 “Ba”의 뜻을 거꾸로 바꾸는 기능이 부여된다는 것은 논리적 공간에서 “Ba”에 대해서 “~Ba”가 바깥 논리적 장소에 놓이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은 이미 그 부정되는 명제가 확정하는 논리적 장소와 관계된다.

부정하는 명제는 부정되는 명제가 확정하는 논리적 장소와는 다른 하나의 논리적 장소를 확정한다.

15) 나는 박정일(2014)에서 그러한 기능이 “의미체”라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부정하는 명제는 부정되는 명제의 논리적 장소를 이용하여, 즉 부정하는 명제의 논리적 장소를 부정되는 명제의 논리적 장소 바깥에 놓여 있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하나의 논리적 장소를 확정한다.(4.0641)

결국 복합 명제의 모든 논리 상황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그 복합 명제로 하여금 논리적 공간에서 어떤 한 장소를 확정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Ba”와 “~Ba”에 대해서 왜 전자는 그림이 아니지만 후자는 그림인지를 정리하기로 하자. 『논고』에서 어떤 것이 그림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먼저 “모사 관계”에 대한 언급부터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악 방식에 따르면, 그림에는 그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모사 관계도 또한 속한다.”(2.1513)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실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2.1514) 그러나 2.1513과 2.1514로부터 우리는 “#Ba”와 “~Ba”가 각각 그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2.1513과 2.1514는 어떤 것이 그림일 때에만 적용되는 언급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가령 “Ba”와 “Ra”가 그림이라고 인정되면 모사 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반면에 “#Ba”와 “~Ba”가 각각 그림인지의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것들의 모사 관계를 지적할 수 없다.

다음으로 『논고』에서 어떤 것이 그림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모사 형식(모사의 논리적 형식, 현실의 형식)에 대한 언급으로 주어진다. “사실이 그림이 되려면, 그것은 모사된 것과 공통적인 어떤 것을 지녀야 한다.”(2.16) “그림과 모사된 것 속에 뭔가 동일한 것이 있어야, 그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2.161) “그림이 현실을 그림의 방식으로—올바르게 또는 그르게—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그림의 모사 형식이

다.”(2.17)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로부터 우리는 “#Ba”와 “~Ba”가 각각 그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Ba”와 “~Ba”가 기호로서 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왜 그것들의 모사 형식은 각각 #Xx와 ~Xx가 아니고 Xx인가? 우리는 위의 언급들만으로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Ba”와 “~Ba”가 각각 그림인지의 여부는 『논고』 2.1번 대의 (모사 관계와 모사 형식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주어진다. 이제 다음을 살펴보자.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왜냐하면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나는 그 명제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제의 뜻이 나에게 설명되지 않았어도, 나는 명제를 이해한다.(4.021)

한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면 무엇이 일어 나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명제가 참인지 알지 못해도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

명제는 그 구성 요소들이 이해된다면 이해된다.(4.024)

나는 바로 이 언급들이 왜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도 그림인지를 해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Ba”를 이해할 수 없지만, “~Ba”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Ba”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고 있다(4.021). 다시 말해 나는 “~Ba”가 “참이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안다.”(4.024) 그렇기 때문에 “~Ba”는 현실의 그림이지만 “#Ba”는 그림이 아니다. “~Ba”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의 대상과 모사 형식을 공유하며, 그 모사 형식은 Xx이고, 이를 토대로 모사 관계가 주어진다. 반면에 “#Ba”는 그림이 아니므로 모사 형식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Ba”는 뜻을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명제의 뜻을 생각하면서 “~”에 어떤 기능을, “B\_”에 (a의) 검음을, “a”에 a를 투영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모사의 논리적 형식”(2.2)과 “기호의 논리적 형식”(3.327)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하자.

그림은 모사된 것과 모사의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2.2)

기호는 기호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논리적 형식을 확정한다.(3.327)

우리는 앞에서 “~Ba”의 모사 형식이 Xx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논고』의 근본 사상에 따라, 논리 상황은 대표하지를 앎기 때문에, 현실과 공유하는 현실의 형식, 즉 모사 형식, 다시 말해 “모사의 논리적 형식”은 Xx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는 “~Ba”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라는 기호에 어떤 기능을 부여(투영)하였다. 이러한 “~”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함께, 기호 “~Ba”의 논리적 형식이 확정되는데(3.327), 이는 ~Xx이다. 마찬가지로 “Ba ∨ ~Ra”라는 명제 기호의 형식, 즉 명제 형식은 Xx ∨ ~Yx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현실과 공유하는 명제의 논리적 형식과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에 따른 명제의 논리적 형식은 상이하**다.<sup>16)</sup>

논리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명제는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과 우리의 투영에 따라 논리적 형식과 그 명제의 뜻이 확정된다. 그런데 요소 명제의 경우 그 참 또는 거짓은 모사 형식과 모사 관계(die abbildende Beziehung)에 따라 그 명제와 현실(그림의 대상)

16)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공적은 명제의 외견상의 논리적 형식이 반드시 그것의 실제 형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4.0031)라고 말한다. 이 언급에서 명제의 실제 “논리적 형식”은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에 따른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다.

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반면에 복합 명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모사 형식과 모사 관계만으로는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복합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묘사 관계들(die darstellenden Beziehungen)”이다. 그렇다면 묘사 관계란 무엇인가?

동어반복과 모순은 현실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들은 어떤 가능한 상황도 묘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허용하며, 후자는 **어떤** 가능한 상황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어반복에서는 세계와의 일치 조건들—묘사 관계들—이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동어반복은 현실에 대해 아무런 묘사적 관계에 있지 않다.(4.462)

“(TTTT)(p, q)”, 즉 “ $p \supset p$ ”, “ $q \supset q$ ”와 같은 동어반복(참고: 5.101)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아무런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4.461) 또한 “(FFFF)(p, q)”, 즉 “ $p \& \sim p$ ”, “ $q \& \sim q$ ”와 같은 모순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참이 아니다.”(4.461) 그리하여 “동어반복에서는 세계와의 일치 조건들—묘사 관계들—이 서로 상쇄”(4.462)된다.

또한 위의 언급으로부터 우리는 묘사 관계가 “세계와의 일치 조건”(4.462)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어반복과 모순을 제외한 모든 진리 함수, 가령 “(TFFF)(p, q)”, 즉 “ $p \& q$ ”는 “세계와의 일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p”와 “q”가 둘 다 참일 때에만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우리는 “ $p \& q$ ”와 세계와의 투영 관계로부터, 특히 우리가 “&”와 같은 논리 상항에 어떤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명제를 이해한다면, 그 명제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4.021)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 $p \& q$ ”의 세계와의 일치 조건, 즉 묘사 관계를 통하여 그것의 참 또는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동어반복과 모순에서는 그러한 묘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어반복과 모순은 현실의 그림이 아니다.”(4.462)<sup>17)</sup>

## 5. 부정의 수수께끼

그렇다면 그림 이론과 더불어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해결하고자 하였던 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그림 착상을 최초로 떠올린 1914년 9월 29일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명제라는 일반 개념은 명제와 사태 간의 대응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과 함께 한다. 나의 모든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극도로 단순해야만 한다!

명제 속에서 세계는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파리의 범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인형 등으로 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내가 눈멀지 않았다면) 진리의 본질은 곧바로 도출되어야 한다.

각각의 낱말이 그 의미[지시체]를 묘사하는 상형 문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또한 사태들에 대한 실제의 그림들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17) White(2006)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은 현실을 묘사(Abbildung)하지만, 그림은 상황을 묘사(Darstellung)한다”는 방식으로 ‘묘사’와 ‘묘사’라는 용어를 항상 상이한 대상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White(2006), p. 49)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비트겐슈타인은 4.12에서 “명제는 전체 현실을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White(2006)는 “한 명제는 만일 그것이 묘사하는 것이 그것이 묘사하는 것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White(2006), p. 50)라고 말한다. 이 또한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고』에서 “묘사”와 “묘사”가 차이가 있다는 White(2006)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비트겐슈타인은 현실(그림의 대상)에 대해서는 “묘사”와 “묘사”를 둘 다 사용하지만, 상황(그림의 뜻)에 대해서는 오직 “묘사”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173의 “묘사 형식”은 4.462의 “묘사 관계”와 관련하여 복합 명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만일 이 그림에서 오른쪽 사람이 사람 A를 나타내고 왼쪽 사람이 사람 B를 지칭한다면, 그 전체는 “A는 B와 펜싱을 하고 있다”를 말할 수 있다. 그림 문자로 되어 있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의 참 또는 거짓과 독립해서 뜻을 지닌다. 이를 통해 본질적인 모든 것은 실증될 수 있어야만 한다.<sup>18)</sup>

이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최초로 “그림”(“사태들에 대한 실제의 그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와 함께, 낱말의 “지시체(의미)”, “진리의 본질”(“명제의 참 또는 거짓”), 명제의 “뜻”(명제는 명제의 “참 또는 거짓과 독립해서 뜻을 지닌다.”)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의미 이론의 문제와 진리 개념의 문제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도 그림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의미 이론의 문제와 진리 개념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에 비로소 도달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명제는 프레게와 달리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진리치의 이름이 아니며) 오히려 그림의 대상을 묘사하거나 묘사한다.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지며(3.3), 명제의 뜻은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다(2.221). 또한 그림의 참 또는 거짓은 그림의 뜻과 그림의 대상(현실)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있다(2.222).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게에는 자신의 그림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철학적인 문제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에게 그림 착상이 떠오른 것은 1914년 9월 29일이었다. 우리는 『일기 1914-1916』에서 그날의 전후 맥락을 살

<sup>18)</sup> Wittgenstein (1961), p. 7.

펴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6일 전(1914년 9월 23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태  $p$ 는 만일 그 사태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면 어떻게 한 속성을 지닐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날(1914년 9월 30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 관계들을 묘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는 가능한가?” 다시 한 달 보름 후(1914년 11월 15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부정의 수수께끼이다. 사정은 그러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하지 **않은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논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 $p$ ”가 거짓이면 “ $\sim p$ ”는 참이다. 그러므로 참인 명제 “ $\sim p$ ”에 서 “ $p$ ”는 거짓인 명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 $\sim$ ”이란 선이 그 명제를 현실과 맞게 만들 수 있는가? (5.512)

요컨대 비트겐슈타인이 그림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또 다른 문제는 “부정의 수수께끼”였다. 그는 그림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부정과 관련된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정의 수수께끼는 청년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러셀에게서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러셀은 『수학의 원리들』(*Principles of Mathematics*, 1903)에서 판단은 주체와 명제 간의 이항 관계라고 간주한다. 그리하여 “ $S$ 는  $a$ 가  $b$ 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 $J(S, aLb)$ ”로 기호화된다.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을 밀고나갈 수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거짓 명제를 판단하는 경우를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aLb$ 가 거짓이라고 하자. 그러면  $aLb$ 에 해당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sup>19)</sup> 그리하여 러셀은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

1910-1913)에서 다중 관계 판단 이론(the multiple relation theory of judgment)을 제시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에서 “a는 b를 사랑한다”는 ‘a’, ‘사랑한다’ ‘b’로 나누어지며, 그리하여 “S는 a가 b를 사랑한다고 판단한다”는 “J(S, a, L, b)”로 기호화된다.

요컨대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에게서 직접 물려받은 부정의 수수께끼는 거짓인 명제를,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몇몇 저작에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언급한다. 『청색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단히 많은 철학적 난점들이 “소망하다”, “생각하다” 등의 표현들이 지니는,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저 뜻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음의 물음 속에 요약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가?”<sup>20)</sup>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가?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가 불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것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sup>21)</sup>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케임브리지 강의 1932-1935』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정, 참, 거짓, 명제라는 관념들(ideas)에 관한 한 가지 특이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영성한 형식으로, 즉 한

---

19) 참고: 버트런드 러셀 (1989), p. 135.

20) 비트겐슈타인 (2006b), p. 61.

21) 비트겐슈타인 (2006b), p. 62.

명제는 어떤 사실도 그 명제에 대응되지 않을 때 거짓이거나 그것의 부정은 참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실도 그 명제에 대응되지 않는다면, 왜 그 명제는 한 이름이 만일 그것이 어떤 것도 명명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무의미하지 않은가?<sup>22)</sup>

생각함, 소망함, 희망함, 믿음, 그리고 부정은 모두 어떤 것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동일한 종류의 당혹스러운 물음들은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가, 또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p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을 때, 즉 아무것도 p에 대응하지 않을 때 아니다  $\neg(\text{not-p})$ 가 p를 부정할 수 있는가?<sup>23)</sup>

부정의 수수께끼란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닐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소망하거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파리의 법정에서 자동차 사고가 인형과 모형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명제 속에서 세계는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즉 파리 법정에서 길 모형, 건물 모형, 자동차 모형, 인형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재현할 때 어떤 것은 사실과 일치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에도 우리는 모형들과 인형들을 시험적으로 조립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대신에 그림의 비유를 시각화하여 밝히면 부정의 수수께끼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정의 수수께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22) Wittgenstein (1979b), p. 108.

23) Wittgenstein (1979b), p. 110.

또는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닐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가령 이 책상이 갈색이고, 그리하여 빨갱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책상은 빨갱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문장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 즉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고. 다시 말해 “시험적으로 조립”되는 상황이 존재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논고』의 존재론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는  $p$ 가  $S$ 의 그림일 때  $S$ 가 거짓인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S$ 는 그림  $p$ 의 대상이 아니라 그림  $p$ 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  $S$ 가 그림  $p$ 의 뜻이 아니라 그림  $p$ 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림의 뜻과 그림의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고』의 존재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논고』의 존재론에 위배된다. 거짓이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세계에 속할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된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부정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부정의 수수께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논리 철학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 철학적 측면이다. 먼저 논리 철학적 측면을 다루어 보자. 앞 절에서 우리는 왜 『논고』에서 복합 명제가 그림인지를 해명하였다. 특히 “ $Ra$ ”는 거짓이지만 “ $\sim Ra$ ”가 왜 그림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Ra$ 가 성립하지 않는 사태일 때 그림에도 불구하고 왜 “ $\sim Ra$ ”가 무의미하지 않고 그림인지(즉 뜻이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 $\sim Ra$ ”가 그림인 이유는 우리가 “ $\sim Ra$ ”를 이해하며 그리하여 “ $\sim Ra$ ”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기 때문”(4.021)이다. 그리하여 사실 Ba와 그림 “~Ra”는 묘사 형식(현실의 형식)이 일치하고 묘사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Ra”는 그림의 대상 Ba의 그림이며, 그 그림의 뜻은 ~Ra라는 상황이다.<sup>24)</sup>

다음으로 심리 철학적 측면을 다루어 보자.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다”, “소망하다”, “믿다”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논고』에서는 주로 “사고”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논고』에 따르면,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3) 또한 『논고』에서 사고는 심리적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구성요소들은 명제의 이름들에 대응된다. 그리하여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3.2)에서 “명제 기호의 요소들”은 “명제의 이름들”이

---

24) 중기 비트겐슈타인은 “부정의 수수께끼”를 “현실(세계)과 사고의 조화 문제”로 재정립한다. 그는 『철학적 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래된 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를 지닌다: “p가 사실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심지어 그 사고를 지님의 전제인 어떤 것이 사실에 존재해야만 한다(나는 만일 색깔 빨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빨강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세계와 사고 간의 조화의 문제이다.”(Wittgenstein (1974), p. 142-143)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부정의 수수께끼에 대한 『논고』에서의 해결이 그림 성격(Bildhaftigkeit, 구상성)의 일치이고, 이는 다시 논리적 형식의 일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오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고와 실제의 조화 또는 일치 대신에 혹자는 사고의 그림 성격(Bildhaftigkeit der Gedanken, the pictorial character of thought)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림 성격은 하나의 일치인가? 『논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했다: 그것은 형식의 일치이다. 그러나 이는 오도적이다.”(Wittgenstein (1974), p. 163) 해커는 부정의 수수께끼와 현실과 사고의 조화 문제를 동일시하면서 그림 이론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주장한다(Hacker (1981), pp. 105-106). 글록은 “부정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이 그림 이론이며, 특히 “한 명제가 묘사하는 것은 가능성”(Glock(1996), p. 299)이라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해결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고 “사고의 대상들”은 사고를 이루는 “심리적 구성요소들”이다. 말하자면, 사고는 일종의 언어이고,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이다.”(4)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4.001)이듯이, 사고들의 총체 또한 일종의 언어이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언어-입말 언어, 글말 언어-와 대조해서 우리는 사고들의 총체를 정신적 언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논고』에서 대상이 의미인 이름(3.203), 이름들의 연쇄인 요소 명제(4.22), 그리고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인 명제(5)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사고에 대해서도, 심리적 구성요소, 구성요소들의 연쇄인 사고(이를 “요소 사고”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소 사고들의 진리함수인 사고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논고』에서 명제와 명제 기호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와 사고 기호를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명제는 사고에, 그리고 명제 기호는 사고 기호에 대응된다. 그리하여 “적용된, 생각된 명제 기호가 사고이다.”(3.5)<sup>25)</sup>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논고』의 사고 개념이 매우 특이한 것임을 알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요소 명제와 대상의 예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제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요소 사고와 그 구성요소의 예도 제시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밖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명제가 요소 명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논고』에 따르면, 나의 사고에는 내가 지금 제시할 수 없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요소 사고들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사고, 희망, 소망 등을 표현하는 과정”과 독립해 있는 “생각함, 희망함, 믿음 등의 정신적 과정”<sup>26)</sup>이 있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는 작용과 독립적이고

25) 참고: 박정일 (2018), pp. 249-250.

26) 참고: 비트겐슈타인 (2006b), p. 79.

어떤 특이한 매체 속에 실려 있는 특이한 사유 작용<sup>27)</sup>이 있다는 것이다. 중기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이러한 『논고』의 심리 철학적 생각을 치열하게 비판한다.

## 6.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논고』의 그림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림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림의 대상은 세계, 현실 또는 세계를 이루는 사태와 사실들이다. 세계에 속하는 사실이 아닌 그저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어떤 그림의 뜻이다. 모사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 간의 관계이며, 투영 관계는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뜻 간의 관계이다. 모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그림과 그림의 대상(즉 사실) 간의 모사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제는 투영 관계에 의해서 기호들이 투영됨으로써 뜻을 지닌다. 복합 명제가 그림인 이유는 복합 명제를 이루는 요소 명제들이 그림의 대상과 모사 형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논리 상황에 우리가 일정한 의미를 투영 시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림의 대상과 모사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림을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에 따라 이해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해는 투영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모사 관계와 우리의 이해(그리고 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과 이에 따른 투영 관계)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그림 이론을 통하여 의미 이론의 문제,

---

27) 비트겐슈타인 (2006b), p. 81.



진리 개념의 문제, 그리고 부정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코라 다이아몬드는 그림 이론에서 “우리 언어의 관계적 형식들”은 “공허”하며, 그리하여 그림 이론은 안으로부터 해체된다(dissolves)고 주장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림-이론’은 명제들과 실제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관계적 형식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림-이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수 없으며,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 그것들[관계적 형식들]이 공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그림-이론]은 안으로부터 해체된다.<sup>28)</sup>

강진호(2009) 또한 다이아몬드와 유사하게 『논고』에서 “‘그림이론’은 단순히 비유일 뿐이며, 내용이 없다”<sup>29)</sup>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주장은 옳은가?

물론 『논고』에서 “그림”은 비유이다. 이는 『논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sup>30)</sup>

모든 비유(Gleichnis, 초상)의 가능성, 즉 우리의 표현 방식의 전적인 그림 성격(Bildhaftigkeit, 구상성)의 가능성은 모사의 논리에 의거한다. (4.015)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그림 이론을 사

28) Mácha, J. (2015), p. 67로부터 재인용함.

29) 강진호 (2009), p. 29, p. 37.

30)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그림”이 비유였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명제가 사실들을 모사한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자. 이 생각은 만일 그것이 그림글자들(Bilderschrift)의 언어를 기술한다면 옳고 적절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대표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말해진 또는 인쇄된 명제가 그림이라고 불린다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며, 또는 오히려 하나의 예이다.”(Wittgenstein (2003), p. 511)

고와 명제에 적용한다. 이는 바뀌 말하면, 명제와 사고를 그림에 비유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명제와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모사의 논리”에 부합하면 그림일 수 있고 그림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사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림에 비유할 수 있다.<sup>31)</sup>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곡의) 음반, 악상, 악보는 음파의 그림이다(4.014, 4.0141).

또한 『논고』에서 “그림”은 애매한 표현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그려진 그림”, 즉 “통상적인 뜻”에서의 그림(4.011)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그림(mapping, model)이다.<sup>32)</sup> 그림에도 불구하고 『논고』 고유의 개념으로서 그림 이론의 “그림”은 정확하게 말하면 후자이며, “그림”은 전문적인 용어이다.<sup>33)</sup>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사의 논리에 의거”(4.015)해서, 모사 형식이 논리적 형식인(2.181) 참 또는 거짓인(다시 말해 논리적인) 그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고』에서 “그림”이 『논고』 고유의 이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림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림”은 비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림 비유”라고 말할 수도 있다.<sup>34)</sup>

31) 글록은 “모사의 논리”를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들”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Glock (1996), p. 302). 물론 이는 오류이다.

32)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명제는 사실의 논리적 그림이다”라고 썼을 때, (··) 나는 이러한 그림의 개념을 두 관점에서부터 물려받았다. 첫째는 그려진 그림으로부터이고, 둘째는 이미 일반적인 개념인 수학자의 그림(picture)으로부터이다. 왜냐하면 수학자는 사상(picturing)에 관해 이야기 하는데 이 경우에 화가는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Wittgenstein (1979a), p. 185)

33)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수학적 의미의 “그림”의 직접적 연원은 헤르츠의 『역학의 원리들』이다. 참고: Hertz (1956), pp. 1-3.

34) 물론 중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이라는 표현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이론은 어떤 것을 기술하고 계산체계는 어떤 것도 기술하지 않기” 때문이다(참고: Wittgenstein (1979a), p. 168). 물론 나는 그러한 생각에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와 사고를 그림에 비유하고 그림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시각적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수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레게의 의미 이론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미 이론에 도달했으며, 러셀의 진리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서<sup>35)</sup> 자신의 진리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더 나아가 러셀에게서 물려받은 부정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그림 비유, 또는 그림 이론이라는 결정적인 착상에 의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이론이 공허하거나 내용이 없다는 다이아몬드(2002)와 강진호(2009)의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

동의한다. 반면에 나는 “이론”을 전문적인 고유한 해명과 논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당하게 “그림 이론”을 폄하하면서, 내용도 없는 공허한 비유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러셀에 따르면, “한 믿음은 그것과 관계된 어떤 연상된 복합체와 대응한다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러셀 (1989), p. 138-139) 그러나 이러한 진리 개념은 그의 다중 판단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 다중 판단 이론은 결정적인 난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박정일 (2018), pp. 254-255.

### 참고문헌

- 강진호 (2009), 「그림이론?」, 『철학적 분석』, 제19호, pp. 1-41.
- 박병철 (2014),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필로소픽.
- 박정일 (2014),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체’에 관하여」, 『철학사상』, 제54집, pp. 131-165.
- 박정일 (2015), 「프레게와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개념」, 『논리 연구』, pp. 1-38.
- 박정일 (2018),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명제적 태도 진술」, 『논리 연구』, 제21집 제2호, pp. 231-267.
- 이영철 (2016),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책세상.
- 버트런드 러셀 (1989), 『철학의 문제들』, 박영태 옮김, 서광사.
- 비트겐슈타인 (2006a),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 비트겐슈타인 (2006b), 이영철 옮김, 『청색책 · 갈색책』, 책세상.
- Black, M. (1964),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 Copi, I. M. (1966),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in I. M. Copi and R. W. Beard (eds.)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Routledge, London, pp.167-186.
- Glock, H. (1996), *A Wittgenstein Dictionary*, Blackwell Publishers Inc..
- Griffin, J. (1964),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acker, P. M. S. (1981), “The Rise and Fall of the Picture Theory”, in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ed. by Ian Block, Oxford: Basil Blackwell, pp. 85-109.
- Hertz, H.(1956), *Principles of Mechanics*, D. E. Jones and J. T. Walley (tr.), Dover Publications, New York.

- Hintikka, J. (1994), “An Anatomy of Wittgenstein’s Picture Theory”, in C. C. Gould and R. S. Cohen (eds.), *Artifacts, Representations and Social Practice*, Amsterdam: Kluwer, pp. 223-256.
- Hintikka, M. B. & Hintikka, J. (1986), *Investigating Wittgenstein*, Oxford: Blackwell.
- McGinn, M. (2009), *Elucidating the Tractatus*, Oxford: Clarendon Press.
- Mácha, J. (2015), *Wittgenstein o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Bloomsbury.
- Marion, M. (2009), *Wittgenstein, Finitism, and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Oxford Philosophical Monographs.
- Pitcher, G. (1964),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White, R. M. (2006), *Wittgenstein’s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Wittgenstein, L.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LTD..
- Wittgenstein, L.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 (1961),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 Wittgenstein, L. (1974), *Philosophical Grammar*, translated by A. Kenny, Basil Blackwell, Oxford.
- Wittgenstein, L. (1975) *Philosophical Remarks*, ed. R. Rhees, trans., R. Hargreaves and R. White, Basil Blackwell, 1975.
- Wittgenstein, L. (1979a),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Translated by J. Schulte and B. McGuinness, Basil Blackwell.

Wittgenstein, L. (1979b),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2-1935, Edited by Alice Ambrose, Great Books in Philosophy, Prometheus Books.

Wittgenstein, L. (2003), *The Voices of Wittgenstein*, translated by G. Baker, et a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willsam@sookmyung.ac.kr

---

## On the Picture Theory of the *Tractatus*

Jeong-il Park

---

Wittgenstein presents so-called picture theory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hat is, then, the point of the picture theory? What are the philosophical problems which the picture theory tries to solve? In this paper, I will endeavor to show that the object of a picture is different from the sense of a picture, that the representing re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ojective relation, that picture theory is applied to composite propositions as well as elementary propositions and that on the one hand the basic problems that picture theory tries to solve are problem of theory of meaning and that of theory of truth, but on the other hand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what Wittgenstein calls “the mystery of negation.” From these discussions, we can see that it is not correct at all to interpret that the picture theory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s nothing but an analogy which does not have a significant content.

Key Words: Wittgenstein, *Tractatus*, Picture Theory, Object of a picture, Sense of a picture, Representing relation, Projective relation, Mystery of negation.